



## 우리들교회 주일예배 생방송 | 2025.08.17

제목: 상한 심령

본문: 시편 51:10-17

설교: 이성훈 목사

-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 14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럴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가진 것이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박상준 집사님 세례간증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교회 욕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 욕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 가지고 안되는데 우리 인생 끝에 돈이 있죠 미리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되기에 없어질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대화가 안됩니다. 돈이 많고... 외도하면...

우리가 말을 안하니 다 우울증 걸리고... 한마디도 안하는데 노후보장으로 입을 벌리고 찬송하고 너무 잘오셨습니다. 다 봉사하고 간증하잖아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거룩에 목적을 두면 이렇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저게 뭐가 행복하냐고 하는데.. 빨리 세례받으시길..

월요일 10~12시 판교채플에서 한구절씩 나누는 큐티 모임 시작합니다.

이성훈 목사님:

부목사중에 설교 잘한다고 다니는 부목사에게 한달동안 설교하라는 원로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목사는 아싸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4번째 설교할때 결국 무릎꿇고 살려달라고 하며 저는 더이상 나올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밀천이 동나지 않았습시다만 이번주는 너무 힘들더라구요..... 자기도취에 빠졌다가...이번주는 마무리가 안되서.. 답이 안나오는 겁니다.

깊이 잇고 회개의 정수가 담긴 본문입니다.

제목이 상한얼굴이었다면 드릴 말씀이 많았을겁니다.

교만해서 상처를 다 튕겨냅니다. 상한 심령에 대해서 설교 하려고 하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이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는것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제 수준이 있고 성도님들을 믿고 받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할테니 은혜는 알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이고 구속사적 묵상을 하는 저희 교회이기에 중요성을 알아 더 놀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귀한 본문..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살아난 본문인데 상처하나 받아본적 없는 저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저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상처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자고도 낙심도 하지 마시고.. 왜 같이 나눌 수 있느냐 토투스 크리스투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 그리스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합하면 다른 존재가 되는것이 아니라 더 홀 크라이스트, 한 분 그리스도, 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겁니다.

당신이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윗의 고백이지 당신이 할수

잇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잇습니다

그런분들은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장 심각한 범죄의 자리에서 공동체적으로 더흠크라이스트입니다. 한사람의 고백이 아니구요. 공동체적 목상이고 회개잇습니다. 성경 저자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분수령적 회개를 하는 귀한 참회시예요. 놀리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할수 잇었던 이유는 더흠크라이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든 상한 심령들께서 알아서 해석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겟다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미다

이게 저같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된단 말이죠 같이 나누고 설교하고 상처와 관련없는 인간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 구절이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몸인 전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그래서 힘을 내서 전할테니... 은혜를 알아서 받으세요.

상한 심령, 상처의 시대, 치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상처만 호소하고 위로받기만 바란다면 상처는 상처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볼 것은 과연 상처는 치유 될 수 있는 것인가? 치유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있겠는가? 진정한 치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처받은 영혼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심령은

1.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백전백승하면 다윗이 마음이 편해지자 타락을 합니다.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야를 죽게 하고 1년 동안 그 죄를 덮어두고 침묵합니다. 나단이 찾아와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가장 강력할 때 당하는 선지자의 고발에 얼마든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라고 발뺌할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유혹당하고 부하들이 과잉 충성했다고 조작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발뺌하고 넘어 갈수 있었을 겁니다. 힘과 권세가 잇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곧장 무릎꿇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며 공식적인 범죄자가 되고 온 나라가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왕좌에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름부은 왕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지고 죄값을 치르고 징계를 받기로 각오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힘과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순간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 재수 없어서 걸리게 아니라 날때부터 죄인이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인이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전에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로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잇는 거예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수 잇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는 다윗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될 가능성이 1퍼센트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 할 뿐이고 꼬여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내 생각하나 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이지만 연전연승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실체를 볼 때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이것이 상한 심령인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상처 받은 마음이나 상처받은 영혼과 상한 심령은 다릅니다. 쌓여서 상한 심령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상처가 상심이 상함 심령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산산조각나 무너지고 부서진 영이라는 뜻이에요

상처입은 영혼은 깨져서 금이 잔뜩 간 그릇이에요 겨우겨우 붙여놓은 그릇입니다. 흠과 상처가 많은...

그러나 상한 심령은요 부서지고 금이 간 조각을 넘어서 완전히 가루로 뺏아서 으깨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고요 그릇의 흔적도 찾을수 없는 절망이구요... 또 더 나악 뭉개진 그 가루 자체가 아니구요 다시 누군가가 잘 반죽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빚고 잇는... 완성된 것은 아닌데 빚고 잇는 재형성, 재제작 과정 중에 잇는 그 과정어딘가가 상한 심령인겁니다. 열심히 빚어지고 잇는 중이에요 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루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빚어지고 잇는 상황 절대적인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소망을 갖는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처 많이 받는다고 저절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태에 잇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피조물입니다. 죄와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든것과 절망의 상황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에요 만새전부터 택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거예요.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상한 심령의 마음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 죄로 절망하고 .... 상처 하나 없는 저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야 하는 이 비참함...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악함과 교만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상처와 절망과 우울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애원하기 보다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내가 조금 더 갈등에 있고 힘들고 조금 더 놀리고 내 삶이 정말 죄악과 싸워서 전쟁과 같은 삶이 되고 빛어지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함께 내 자신에 대해 계속 절망하고 상처가 올 때 잘 받아내고 그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새롭게 창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적용질문]

음란과 낙태의 죄를 회개한 한 청년,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의 역할을 할 용기가 안나 회피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막히자 유서를 쓰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때 예전에 들은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육받으며 깨달은 것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낙태가 태중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통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절망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된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기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뻐있었는데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니 술, 음란, 불평의 말이 끊어지고 찬양,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목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상처가 상한 심령으로 재창조 되는 모습입니다.

## 2. 즐거운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오직 구원뿐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얻는 것은 아니예요.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다윗은 왜 회복 시켜주고 지켜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택자인 다윗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이죠. 죄가 구원을 빼앗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질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귀와 마음이 막혀 무엇을해도 힘들게 됩니다. 큰 죄를 저질러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뽀뽀함의 근거가 되면 안되겠지만요... 구원의 즐거움은 잊어버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붙들여 달라고 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존재고 이미 넘어진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혼자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붙들여 달라고 고백하나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로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강요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심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같지만 절반은 무서움이 깔려있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받을 이익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전적자유로 하는것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는 당신이 좋아 하지만 속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절망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고 기계적, 조건적, 노예적 선택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요 진짜로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자기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큐티를 왜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다는 것처럼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인가 생각해봐도 그걸로는 답이 안나와요. 예배, 큐티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것.. 이것은 그냥 자유로운 순종이며 좋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사랑

우리는 물론 스스로에게서 사랑을 찾을 없는 존재지만... 할수도 만들수도 지을수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거두지 않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신겁니다. 넘어 질 수 밖에 없지만 붙잡고 계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3절~15절 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붙들여 주시면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하는 적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구원을 받기위한 조건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결과인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을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신을 돌이키도록 책망해 주셨다는 것, 징계받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셨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죄인은 주께 돌아와야 된다....돌이켜서 살아야 된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침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께 돌아와야 할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구원의 즐거움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종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상한 심령은요. 즐거움이 있는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으니 즐겁고 나같은 무익한 죄인에게 사명을 주시니 즐겁고 입에서 불평, 욕밖에 안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벌리셔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주시니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잇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천국과 사명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놀리고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럽고 저주받은 인생같은 우울한 상한 심령이지만 부르심을 믿고 굳게 서서 많은 죄인들을 무너진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질문]

파킨슨 병 앓고 계신 지체가 티티에서 간증을 하니, 만난지 몇시간 안된 현지분들과 열싸안고 평평울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능할까요? 고난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만국 공통어임을 확인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구원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사명 끝까지 즐겁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거짓 된 예배, 형식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원어로 번역하면하나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직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직접 드리시는 제사... 제사중의 제사인 최고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본인이 이 제사를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겠어요? 직접 준비까지... 하시면서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인격적인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셨는가? 천국가셔서 왜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아니에요. 귀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떠나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근심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상하게 했다....상한 심령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때문에 상하시고 부서지시고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때문에 하나님도 상한 심령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 되셨어요 누구때문에요? 바로 저때문에요...

엄청난 사랑인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무너진거 같아도 억울하고 분하고 불평이 올라오고 부서버릴거야 하며 이를 갈잖아요 10배로 되갚아줄거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되는 상한심령이 된 상황에서 내리신 결론은 우리를 부수고 없애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점처럼 작아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는 복종을 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삶과 영혼이 무너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다 지시고 부서지셨어요.... 육과 영이말이죠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철저히 무너지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깨진 그릇같은 상처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가시고 상한 심령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 존재와 삶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멀쩡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자신감 넘치고 잘나고 당당한 심령이 아닙니다. 상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가루처럼 으스러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문자 뜻 자체로 가루처럼 으깨지고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폭삭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하루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 할 수 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으신게 아니구요. 최고의 제사로 여러분을 받으신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무너진 삶 부끄러워하지 마시구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을 온전히 무너뜨리십시오.. 이것은 자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재창조하시는 사역에 손을 올려놓는 거룩한 사역인 겁니다.

#### [적용질문]

결혼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일줄 알았던 성도님. 친정보다 힘든 욕하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힘들어서 가출하고 다른 남자 만난 성도님. 교통사고 난 아들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남편에게 맞아죽을 각오를 했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안아주었는데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은혜를 잊고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가족에게 암 사건, 돈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며 큰 상처들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돈과 남편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인이라는 것을 상처투성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바람피고 나밖에 모른 최악의 아내인 나를 버리지 않고 살아준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의 고백인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자 다른 가족 살리는 즐거운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인생 찾으십니다. 다시... 창조해가실.... 넘어질 수 밖에 없는 무너진 마음, 그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갈때 기쁘게 받아 주실줄 믿습니다.